

10만전자 '반토막'... "일부 임원에 퇴임통보" 쇠신 나선다

삼성전자, 이르면 오늘 정기인사

DS실적 부진, 대대적인 개편 예상
사장단 인사 후 임원인사 등 단행
노태문·박학규 향후 행보에 관심

삼성전자가 이르면 27일부터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공개적으로 위기 극복을 다짐한 만큼 대대적인 쇠신 인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반도체 겨울'을 맞은 반도체(DS) 부문은 사장급 사업부장 다수가 교체되는 등 신상필벌 인사가 나올 것이란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정기 인사를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길 전망이다. 이미 지난 23일부터 반도체 사업을 DS 부문을 중심으로 일부 임원들에게 퇴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삼성전자는 통상 인사 명단을 12월 첫째 주에 발표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11월 마지막 주로 인사 시기를 소폭 앞당길 것이라 전망이다. 올해 3분기 반도체(DS) 실적이 크게 부진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 쇠신에 나설 것이라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27일 사장단 인사를 한 뒤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순차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전자 DS 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은 3조86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성적을 기록하며 '10만전자'를 앞둔 주가는 반토막이 난 상태다. 결국 내외부 안팎에서 삼성전자의 조직 쇠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 인사를 앞당길 것이라 분석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이 취임한 이후 첫 정기인사다. 앞서 전 부회장은 반성문을 내놓으며 조직 쇠신을 시사했다. 그는 삼성 위기 진단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며 "근원

적 기술 경쟁력 회복, 미래 준비, 조직 문화 재건"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원 인사 폭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사장단 이사가 총 5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실적 부진에 시달린 반도체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호황에도 3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낸 만큼 사업부장(사장)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노태문 MX(모바일경험)사업부장(사장)과 박학규 경영지원실장(사장) 등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또 업계 안팎에서는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 이동 가능성을 비롯해 남석우 제조&기술담당 사장, 송재혁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반도체연구소장 등의 중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중희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과 전영현 DS 부문장의 '투톱' 체제는 유지에 무게가 실린다. 정현호 부회장이 이끄는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의 역할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회장은 조직쇄신을 시사했다.

이 회장은 전날 열린 제일모직-삼성

물산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누군가는 근본적인 위기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걱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왔다"며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 녹록치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요 경영진의 전원 물갈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데다 대내외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대적인 인적 쇠신은 자칫 위기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한중희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과 전영현 DS 부문장의 '투톱' 체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는 인사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12월 중순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열어 내년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비위원실 심의필 제24-08호(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실적을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보호연도> 노란우산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계좌로서, 중소기업동조합법 제120조에 따라 장래 지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예금(및)납부원금을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부거래 국내서만 278조 총수 2세 지분 높을수록 ↑

공정위,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
대기업 매출 감소에 비중 증가
국내외계열사 내부거래 704조

지난해 대기업들의 전체 매출이 감소하면서,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 한국엔컴퍼니그룹 순, 내부거래 금액은 삼성, 현대자동차 순으로 높았다. 특히 대기업 총수 2세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이 지속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709개 계열회사의 지난해 1년간 내부거래 현황(상품·용역 거래 현황)을 분석해 26일 공개했다.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로, 내부거래 금액은 704조4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277.9조원), 국외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19.7%(426.5조원)이다.

전년 대비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유사한 수준이나, 전체 매출액 감소로 인해 내부거래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2년 연속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1개사의 경우에도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유사한 수준이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해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총수 있는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194.8조원)과 매출액(1343.2조원)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폭이 내부거래 금액 감소 폭을 상회해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특히 총수2세의 경우,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총수2세 지분율이 100%를 제외한 대부분 구간에서 전년 대비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대기업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65.0%), 한국엔컴퍼니그룹(59.3%), 삼성(56.0%), 현대자동차(55.4%), SK(51.5%) 순, 내부거래 금액은 삼성(201.1조원), 현대자동차(157.9조원), SK(103.6조원), LG(57.2조원), 포스코(42.1조원) 순으로 높았다.

내부거래가 부당한 내부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거래당사자가 처한 상황, 구체적인 거래 조건, 거래 기간, 경제상 이익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사항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나 금액만으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공정위는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익계약 비중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